

內板驛의 石佛立像

金光洙

內板驛에서 北으로 約二百米되는 鐵道沿邊의 淺은 丘陵에 있으나 位置는 不明하다。花崗石材의 擧身舟形光背를 具備한 立佛인 바 上部는 頭部를 包含하여 若干 破損되었으며 下部가 埋沒되고 全面에는 많은 이가 있다。

光背는 周緣의 左右가 對稱이라고는 할 수 없는 程度로 左便이 圓弧를 그렸고 頭身部에 單蓮이 線刻되었으며 頭光은 圓形이나 身光은 말굽部 分까지 刻하였다。蓮瓣은 끝이 뾰족하여 拙劣한 感이 든다。

頭部는 左眼以上이 破損되었으며 素髮의 頭頂에는 棼직한 肉髻의 右端이 若干 남았으며 相好는 거의 刻明하다。輪廓은 棼部分이 若干 좁은 梯形이며 兩耳는 棼게 棼어졌다。목에는 三道가 있으며 通肩한 法衣는 胸前에서 棼머지고 兩腕을 棼쳐 棼으로 棼 펼쳐져 있다。手印은 右手를 胸部에 棼左는 臍部에 棼렸는데 兩手が 모 두 母指와 人指로 環形을 棼하여 손바닥이 棼보이지 棼않게 棼어져 있다。



彌陀如來임을 알 수 있으며 彫刻手法는 形式的이고 秀麗치 못하나 棼중하여 安定感을 주며 年代는

高麗中期로 推定된다。

光背 高一二六〇 cm
佛高 二二七 cm
廣 幅 二二〇 cm
肩幅 九〇 cm
蓮瓣幅 一一〇—一五 cm

資料

◎ 新羅鬼面瓦의 新例

月城郡 外東面 石溪里 寺址에서 出土되었다는 棼長二一 cm 幅二四·五 cm로 棼上部만이 緩曲된 方形。灰白色精土로서 周緣에는 雲文이 있고 面部는 高彫。특히 口鼻는 約一〇 cm의 棼높이로 突出되어 注目。完形의 棼優品이다。(六月十六日 棼경주溫古堂에서)

◎ 新羅十二支像石片의 新例

慶州市 路西里 二五番地 李應道氏 家屋內에서 發見되어 一九六一年 九月十一日 慶州博物館에 搬入된것。長 六〇 cm 高 二四 cm 廣 二四 cm의 長方形破片。側面에 眼象一區가 있고 그 안에 座形의 十二支(辰?) 一驅가 彫刻되었는 바 原形은 各面三像式의 方形臺石으로 推定된다(六月十八日 調查)

